



# 농수산물식품 수출

## Zoom In 60호

I 국산 딸기 수출검역 적극 지원

II 국산 호접란 화분재 미국 첫 수출

III 딸기 자동선별기 개발로 수출길 '활짝'

IV 국산 껌은 꽃 장미 품종·계통 평가회 개최



# 농수산물 수출 Zoom In 60호 2019. 3. 22(금)

‘19.2.28까지 농수산물 수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14.6억\$





## 부류별

신선	가공	수산
  <b>10.3%</b> 219백만불	  <b>2.1%</b> 852백만불	  <b>9.3%</b> 387백만불
+ 인삼류, 김치, 딸기 - 배, 유자차, 토마토	+ 라면, 커피조제품, 맥주 - 궤련, 비스킷, 제3맥주	+ 고등어, 김, 삼치 - 참치, 오징어, 넙치

## 국가별

\* 쌀 무상원조 실적(20.0백만불) 제외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반영

 <div style="background-color: #f96;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b>중국</b>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형마트 연계 한국 소스류 판촉(계속)</li> <li>▶ 춘파 O2O 매장 연계 포도 홍보 판촉(계속)</li> </ul> 232백만불(3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79%), 인삼류(35%)</li> <li>▼ 참치(△13%), 유자차(△10%)</li> </ul>
 <div style="background-color: #d9e1f2;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b>ASEAN</b>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트남 Vinmart 연계 버섯 판촉(~4.13)</li> <li>▶ 태국 Tom&amp;Toms 연계 딸기 판촉(~4.30)</li> </ul> 299백만불(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치(33%), 딸기(25%)</li> <li>▼ 궤련(△46%), 배(△17%)</li> </ul>
 <div style="background-color: #f96;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b>일본</b>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YAHOO JAPAN 연계 온라인판촉 추진(계속)</li> </ul> 425백만불(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궤련(5%), 파프리카(5%)</li> <li>▼ 참치(△21%), 라면(△5%)</li> </ul>
 <div style="background-color: #f96;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b>미국</b>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A 99 Ranch 마켓 연계 신선식품 판촉(계속)</li> </ul> 175백만불(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치(5%), 음료(4%)</li> <li>▼ 라면(△22%), 김(△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딸기(6%), 맥주(6%)</li> <li>▼ 궤련(△23%), 김(△2%)</li> </ul>	<div style="background-color: #f96;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b>홍콩</b> </div> 63백만불(△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스킷(88%), 새송이버섯(7%)</li> <li>▼ 참치(△15%), 라면(△12%)</li> </ul>	<div style="background-color: #d9e1f2;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b>EU</b> </div> 87백만불(△15.7%)

☆   : 15%이상 /  : 5~15% /  : 0~5% /  : 0~△5% /  : △5~△15% /  : △15%이하

## 품목별 이슈

\* 실적 : '18. 1. 1 ~ 2. 28



### - 김치

- ◇ 미국의 신제품 출시에 따른 큰 폭 증가세와 1위 수출국인 일본 및 유럽 지역 수출 호조에 따라 1월에 이어 두 자릿수 상승

**16,640천불(10.9%)**

▶ 주요 수출국 : 일본(9,731천불, 4.6% ↑), 미국(1,975, 69.2 ↑), 홍콩(754, 22.6)

### - 버섯류

- ◇ 미국, 호주 및 네덜란드 수출 호조  
특히, 새송이 버섯의 수출 상승세(4,116천불, 10.1% ↑)



▶ 주요 수출국 : 미국(2,664천불, 5.3% ↑), 네덜란드(2,002, 10.2 ↑), 호주(1,149, 23.6 ↑)

**8,798천불(3.6%)**



### - 커피조제품

- ◇ 커피 시장 성장에 따른 인니, 이스라엘 등 수출 확대

**43,657천불(11.4%)**

▶ 주요 수출국 : 인니(6,442천불, 11.2% ↑), 중국(5,206, 41.9 ↑), 이스라엘(4,100, 94.2 ↑)

☆ 자세한 동향관련 내용은 aT kati(www.kati.net) > 수출동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수산식품 수출 Zoom In>은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aT 수출기획부 061-931-0816)

## 식물검역 이슈



농림축산검역본부



### 수출담당/지자체 식물검역관 역량강화 교육

'19년 2.21.~21 양일간 검역본부는 충북 제천에서 원활한 농산물 수출검역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역별 검역본부 수출검역 담당자 및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 합동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최근 수출검역 협상동향 및 국가별 현안사항, 농식품부 수출진흥과의 수출 지원 정책 등을 공유하였고, 수출검역 개선을 위한 참석자들의 건의사항 수렴·답변과 자유토론을 통해 수출검역단지와 지자체식물검역관 운영방안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다.

### 국산 딸기 수출검역 적극 지원

검역본부 창원사무소는 동남아 등으로의 딸기 수출 지역이 밀집된 진주를 포함한 서부 경남 일대를 관할하고 있고 전국 검역기관 중 딸기 수출업무비중이 67%를 차지할 정도로 딸기 수출업무가 많은 곳이다. 최근 생산자 단체의 요구에 따라 3월 이후부터는 필요시 수출담당 검역관을 최소 1주일 단위로 수출 현장에 파견·상주시켜 당일 선과·검역·선적에 불편함이 없도록 물량 등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 수출 검역증 재발급하는 등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검역을 지원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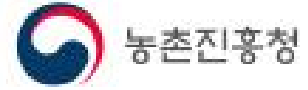
### 국산 호접란 화분째 미국 첫 수출



검역본부는 '17년 10월 화분에 심겨진 호접란과 심비디움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협상을 타결하고 그 해 12월에 수출검역요건을 제정한 바 있다. '18년 7월 검역본부와 미국이 합동 점검을 통해 처음으로 승인 해준 상미원(농업회사법인)에서 재배한 화분에 심겨진 호접란 2만 1천분이 처음으로 '19년 3월 9일 부산항을 통해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 현재까지 승인된 시설은 상미원(충남 태안)과 동천난원(경기 동두천) 2곳이다. 이번 수출을 통해 국내 호접란 재배농가의 본격적인 미국 화훼시장 공략이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탁 금지법' 시행 등에 따른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화훼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 외국의 농산물 수출검역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http://www.qia.go.kr)) > 수출식물검역정보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 식물검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912-0623)

## 농진청 이슈



### 딸기 자동선별기 개발로 수출길 '활짝'

딸기를 수출하는 농가는 선별 인력 부족과 작업 과정에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자동선별기'와 '팻릿 MA(mollified atmosphere) 포장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자동선별기는 딸기의 모양과 색을 분석해 수출하기에 알맞은 정도로 익은 딸기만 골라내며 기존 인력의 절반만으로도 90% 이상 정확한 선별이 가능하다. 아울러 선별 과정에서 생기는 손자국으로 인한 물러짐 현상도 최소화할 수 있다. '팻릿 MA 포장'은 딸기가 익는 속도(호흡속도)를 늦춰 호기성 곰팡이 발생을 줄이고, 물러짐을 막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이 포장을 활용하면 딸기에 당도가 충분히 오른 딸기를 수확하여 더 맛있는 상태로 수출할 수 있다.

이 기술로 인건비 절감 및 클레임으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수출용 딸기 선별기



▲수출딸기 팻릿 MA 포장

### 국산 꺾은 꽃 장미 품종·계통 평가회 개최

지난달 21일 서울 양재동에선 "꺾은 꽃 품종·계통 평가회"를 열어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15품종과 우수한 30여 계통을 선보였다.

장미 '09SR5-62'는 밝은 빨간색 스프레이(줄기 한대에 여러 개의 작은 꽃을 피우는 형태) 계통으로 일본 시장 수요에 알맞다는 평을 받아 앞으로 장미 재배 농가와 유통 업체에 인기를 끌 전망이다.

꺾은 꽃의 수명이 길어 인기가 많은 노란색 스탠다드(줄기 한대에 하나의 꽃만 피우는 형태) 장미 '엘로우션' 등 국산 장미도 소개되었다.

현재까지 육성된 국산 장미는 200여 품종이며, 보급률은 2007년 4.4%에서 2018년 30%로 늘었고 사용료(로열티) 절감액 또한 2007년 약 2.2억 원에서 2018년 13.2억 원(추정) 가량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우수한 국산 품종을 개발하고 널리 홍보하여 소득 증대와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 '09SR5-62' 계통



▲ '엘로우션' 품종

☆ 농진청 이슈 문의처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063-238-0674)